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52.58 (+381.41)		840.89 (+16.43)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11 (+0.013)		1395.15 (-2.55)



정의선 회장, 美서 제네시스 GV90 첫 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GV 90 월드 프리미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네시스북미법인 COO(최고운영책임자) 테드로스 맵기스테, 현대차그룹 R&D본부장 만프레드 하러 사장,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CCO 겸 CDO 루크 동커볼케 사장. <관련기사 4면>

/현대차그룹

신협 862곳 중 166곳 자본잠식 3년째 적자... 지역금융 '빨간불'

메트로경제, 신협 전수조사

자본총계 '0' 완전자본잠식 38곳
지방중심 부동산PF 대출 리스크 탓
두 자릿수 연체율 조합도 51곳 달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신용협동조합(신협) 166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황이다. 신협이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금융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올 상반기 정기공시를 게시한 전국 862개 신협 조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166곳이 자본잠식(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황) 상태다. 10곳 중 2곳이 자본잠식에 빠진 셈이다.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도 총 51곳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토지담보대출 등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잠식 조합은 지역 곳곳에서 확인됐다. 전북·대구·전남광주가 각각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각 1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부산은 각 15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완전자본잠식(자본금이 모두 소진되고, 자본총계가 0 이하인 상황)에 빠진 조합은 모두 38곳이다.

특히, 대구자본잠식조합이 7곳(대구수성·대구영광·방촌·중앙로·포산·한아름·효천)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경일·김천·대동·충양·호명)·전북(군산반석·군산해성·송천·익산·전주덕진)·부산(당감·부산행복·북부산·성가·승학)은 각 5곳이다.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이여 경남 4곳(거제중앙·경남동부·남해·진해), 서울 3곳(다운·묵동·서울서부), 인천(송림중앙·송의)·충남(공주·태안)·세종(세종부강·세종) 각 2곳, 경기(성남대원)·충북(청주서원)·전남광주(계림)는 1곳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곳도 확인됐다. 전북 익산신협의 경우 잠식률이 무려 857.29%다. 자본금은 9억4600만원인 반면 자본총계는 -71억6400만원이다. 부산 북부산신협은 잠식률이 322.6%다. 자본금 91억3100만원, 자본총계 -203억2500만원이다.

자본잠식은 손실이 쌓이면서 조합의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 부분자본잠식, 손실이 더 커져 자본총계마저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다.

당장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익잉여금이 결손인 조합은 총 21곳으로 파악됐다.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즉 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지속되면 자본잠식 총계가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조합들의 자본금이 잠식되는 배경에는 신협의 계속되는 적자 기조가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상반기 18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에 이어 3년째 적자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 증가로 관련 대출 채권의 부실이 이어지면서 지방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며 손실이 점차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연체율도 상승세다. 상반기 연체대출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조합은 총 51곳에 달한다. 전국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신협이다. 상반기 기준 연체율은 28.44%다. 경북 왜관신협은 27.24%, 호명신협은 26.10% 수준의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신협중앙회는 자산관리회사를 새롭게 설립해 본격적인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10월부터 가동되는 신협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 매입·매각에 더해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조합의 재무·경영상황을 경영진단으로 점검한 뒤,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합리화 지원자금 등을 활용해 경영개선 및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는 개별 조합별 진단과 의사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합병 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채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DX노조 3000명 거리 집결 ‘단체 연차’ 업무공백 논란

삼성전자 동행노조, 오늘 집회

노조, ‘휴무 사용’ 쟁의행위와 달라
노조법상 정상업무 저해시 ‘쟁의행위’
참가규모·근태 처리방식 여부 ‘관건’

삼성전자 다바이싱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3000명 규모의 집회에 나선다. 쟁의 절차 없이 연차와 휴무를 활용한 집단행동인 만큼 실제 업무공백 여부가 적법성을 가를 쟁점이다. 여기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내년 공동교섭을 거부하면서 3만명 규모로 커진 동행노조의 향후 교섭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역과 삼성전자 서초사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인다. 예상 참가자는 약 3000명이다. 조합원들은 연차와 회사 휴무제도의 ‘D-Day’ 등을 활용해 참여할 예정이다.

문제는 근무일에 조합원 수천 명이 집단으로 휴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동행노조는 정상적인 휴무를 쓴 자발적 참여인 만큼 파업 등 쟁의행위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와 법체계에서는 휴무 사용 자체보다 집단행동의 목적과 업무에 미친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규정한다. 대

법원도 집단 연차의 형식보다 목적과 방식을 따져왔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같은 날 연차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21일 실제 참가 규모와 근태 처리 방식, 사업장별 업무공백 여부가 관건이다.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만큼 평화의무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한다. 이번 집회는 일정과 장소가 사전에 알려진 만큼 실제 진행 방식과 업무 차질 정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조가 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는 배경에는 DX와 반도체를 담당하는 다바이싱솔루션(DS)부문의 보상 격차가 있다. 동행노조는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과 성과급 재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수원사업장에 이어 이번에는 서초사옥으로 집단행동 무대를 옮겼다.

삼성전자는 DX와 DS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며 성과급 재원도 각각 관리하고 있다. 특정 부문의 성과를 다른 부문의 보상 재원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신세계 강남·롯데 잠실 ‘4조 클럽’ 눈앞

백화점, 명품·외국인 소비 업황 개선
신세계 강남, 연매출 4조 ‘가시권’
롯데 잠실, 하반기 20% 고성장 관전

국내 백화점 매출 1·2위인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올해 나란히 연매출 4조원 고지를 넘보고 있다. 명품과 외국인 소비를 중심으로 백화점 업황이 가파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대형 핵심 점포로 매출이 집중되면서 사상 첫 ‘4조원 백화점’ 탄생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계 강남점은 4조원 돌파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고, 롯데 잠실점 역시 상반기 성장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갈 경우 4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2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백화점 점포별 가매액 순위는 신세계 강남점이 3조 6720억원으로 1위, 롯데 잠실점이 3조 301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세계 센텀시티점(2조 2640억원), 롯데 본점(2조 186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신세계 강남점이 올해 4조원을 넘기 위해 필요한 성

장률은 약 8.9%다. 롯데 잠실점은 약 21.2% 증가해야 한다. 양사에 따르면 강남점과 잠실점 모두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대 성장한 만큼 강남점은 현재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4조원 달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잠실점도 4조원 사정권에 들어왔지만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가는지가 관건이다.

신세계 강남점은 4조원 돌파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상반기 20%대 성장세를 기록한 강남점은 하반기 성장세가 8.9% 수준으로 크게 둔화하더라도 4조원 고지를 밟는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의 분기별 가매액 신장률은 1분기 22%에서 2분기 27%로 오히려 확대됐으며, 2분기 명품 매출은 41% 급증했다. 외국인 매출 또한 1분기 90%, 2분기 149%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전년 대비 120% 늘어나는 등 견조한 인바운드 수요와 VIP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조희대 ‘서면 제형’ 논란에…법원 내부 “할일 한 것” vs “모양새 아쉬워” /사진 뉴시스
▲왕이, ‘北핵보유국 지위 반대’ 간접 피력…“中, 비확산 체제 준수 책임 의무 다 할 것”

▲국힘 재경위원 “與 예결소위원장까지 말겠다고…재경위마저 싸움터 만들어”
▲김종인 “국민의힘, 이진숙 말 들으면 민심 얻기 힘들 것”…5·18 폄해 논란 비판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法 “사유 인정돼”
▲덕수궁 야외 결혼식 검토 끝에 무산…“별도 계획 없어”